

# 『璿源系譜紀略』肅宗28年本 刊行過程考\*

A Study on the Publishing Process of *Sonwon-kyebo-kiryak*  
Sukjong's 28th Year Edition

尹仁鉉(Yoon, In-Hyun)\*\*

## < 목 차 >

- |                   |        |
|-------------------|--------|
| 1. 緒言             | 4. 結言  |
| 2. 숙종26년본과 숙종28년본 | <參考文獻> |
| 3. 숙종28년본의 刊行過程   |        |

## < 초 록 >

본고는 『璿源系譜紀略』 숙종26년본과 숙종28년본의 관계를 살핀 후, 그 숙종28년본의 刊行過程을 밝힌 것이다. 숙종28년본은 숙종26년본의 修正完成本이다. 이 두 판본은 각각 190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숙종28년본은 숙종26년본의 목판을 사용하여 68張分을 그대로 인출했고, 74張分은 補空하였으며, 48張分은 완전히 새로 새긴 판본이다.

숙종26년본이 완성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刑曹判書 金鎭龜가 오류를 지적함을 시작으로 약 22개월의 수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교정청은 설치하지 않았으며 반사본 부첩환수로부터 시작하여, 봉단절목과 응행절목 마련, 初草, 中草, 付板正書, 板刻, 印出, 改粧, 進上, 洗草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산발적으로 수정을 가하였다.

요어: 선원계보기략, 선원보략, 목판인쇄술

\* 이 논문은 2003학년도 대진대학교 학술연구지원에 의한 것임.

\*\* 대진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yoonih@daejin.ac.kr)

접수일: 2004년 5월 31일 최초심사일: 2004년 6월 4일 심사완료일: 2004년 6월 18일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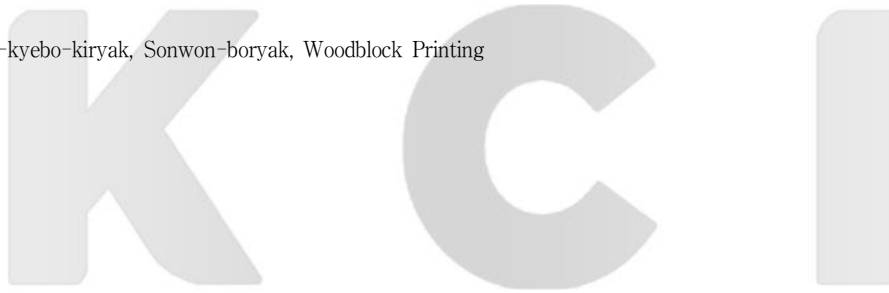
The present article focuses on the differences between Sonwon-kyebo-kiryak Sukjong's 26th year edition and Sukjong's 28th year edition and the publishing process of Sukjong's 28th year edition. This edition is what Sukjong's 26th year edition was revised.

These two editions have 190 leaves each. Speaking of the engraving, 68 sides of them were shared, 74 sides were revised, 48 sides were newly engraved among 190 sides of wood blocks.

Shortly after the publication of Sukjong's 26th year edition, Hyeongjo-Panseo Jin-Ku Kim (刑曹判書 金鎮龜) pointed out some errors on that and then it took about 22 months to complete this edition.

It was published without establishing Kyojeongcheong(校正廳). The revision proceeded as follows: making procedure how to gather genealogical records, setting up rules and regulations on genealogical record description, making the first transcription, making the second transcription, making the final transcription to be attached on wood blocks, engraving, printing, binding and decorating books, dedicating and viewing of completed books to the King and its ceremony, and the ceremony of finishing work. In these processes, sporadic revisions were made in its publication.

Keywords: Sonwon-kyebo-kiryak, Sonwon-boryak, Woodblock Printing



## 1. 緒言

正祖7年 이후에 간행된 『璿源系譜紀略』의 總敘에 의하면<sup>1)</sup>, 肅宗26년 6월에 중부시에 교정청을 설치하고 숙종7년본을 본보기로 삼아 그 판본 이후에 자손의 증가된 부분과 그 판본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重校補刊하였다 하고, 이어서 숙종28년에는 仁顯王后의 諡號를 추재하여 重校補刊하였다고 간단히 기록하고 있다.

璿源의 譜略을 약 2년만에 다시 간행했다는 것은, 숙종7년본이 숙종5년본의 수정완성본이며 숙종46년본이 숙종45년본의 改張修正本이었듯이 이 또한 숙종26년본의 수정완성본이 아니겠는가 추정은 해왔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

이에 필자는 이미 숙종26년본의 간행에 대해서 소상히 살펴 본 바 있으므로<sup>2)</sup> 이를 바탕으로 숙종28년본을 살펴보고자 한다. 숙종26년본은 東善都正과 益寧守가 숙종7년본 이후 약 20년 동안에 새로이 발생된 修譜事項을 추가하여 『璿源系譜紀略』 속책을 필사하고 이를 숙종에게 바친 이후, 간행의 명이 떨어지고 이에 校正堂上을 선발하고, 교정청 설치, 응행절목 마련, 단자수집, 분방과 업무분장, 초초, 부판정서, 어람정서, 진상, 교정, 판각, 인출, 장황, 완성본 진상과 진전, 세초, 철국 등의 순서로 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먼저 숙종26년본과 숙종28년본의 실물을 추적하여 비교한 후 숙종28년본의 간행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 2. 숙종26년본과 숙종28년본

### 2.1 판본의 전존현황

숙종26년본과 숙종28년본에 관련이 있는 목록은 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에 4건,

- 1) 『璿源系譜紀略』宗簿寺編, [李王職 增修], 木版, [1931跋, (藏書閣 2-1039<M35-2001>) 冊1, 張1. 總敘 “二十六年庚辰夏 六月命設校正廳于宗簿寺 如辛酉禮 重校補刊 以東善都正炳 進璿紀略續篇 詳錄 原編後 支裔之蕃衍 且釐正原編之訛誤也 二十八年壬午 重校補刊 以仁顯王后諡號之追載也”
- 2) 拙稿, 『璿源系譜紀略』肅宗26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卷22집(2001. 12), p.405-436.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1건, 국립중앙도서관 1건으로 모두 6건 외에는 없는 것으로 필자는 조사해 놓고 있다. 이들을 하나씩 확인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가 있다.

1) 璿源系譜紀略(2-967)

宗簿寺(朝鮮)編. 木版. [肅宗 26(1700)].

3卷2冊 ……(생략)

---- 同書9部

이것은 장서각의 목록으로 이에 따르면 숙종26년본이 9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숙종26년본이 아닌 숙종28년본 8부와 이본합질(v1.숙종28년본, v2.숙종39년본) 1부이다.

2) 璿源系譜紀略(2-971)

宗簿寺(朝鮮)編. 木版. [肅宗 26(1700)跋].

2冊. ……(생략)

---- 同書23部

이것도 장서각의 목록으로 이에 따르면,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숙종26년의 跋文이 있는 2책 완질본이 23부가 있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숙종28년본 완질 7부와 이본합질 7부와 숙종39년본 완질 9부이다. 이 중 이본합질 7부는 제1책이 숙종26년본이고 제2책이 숙종39년본인 것이 2부, 제1책이 숙종28년본이고 제2책이 숙종39년본인 것이 1부, 제1책이 숙종39년본이고 제2책이 숙종28년본인 것이 4부이다.

3) 璿源系譜紀略(2-969)

宗簿寺(朝鮮)編. 木版. 肅宗 26(1700).

1冊存.(卷3) ……(생략)

이것도 역시 장서각의 목록으로 숙종26년본 중 1책이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숙종 28년본 제2책이다.

4) 璿源系譜紀略(2-970)

宗簿寺(朝鮮)編. 木版. [肅宗 26(1700)跋].

1冊存.(卷3) ……(생략)

이것도 역시 장서각의 목록으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숙종 26년의 跋文이 있는 零本이라는 뜻이지만 전후좌우로 대조한 결과 실제로는 숙종26년본 제2책임에 틀림없다.

5) 璿源系譜紀略(中宗 ~ 肅宗)

宗簿寺(朝鮮)編. [肅宗 28(1702)]

3卷2冊 ……(생략)

<奎 8723, 8724, 8748, 8755, 8756>

이것은 규장각의 목록으로 숙종28년본이 5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규 8723과 규8748 등 2부는 숙종39년본이며, 규8724, 규8749, 규8756 등 3부는 숙종28년본이다.

6) 족보. 선원계보 (古2518-系96-17)

璿源系譜紀略, 卷 3 (朝鮮)肅宗 命編. 木版本.

肅宗 26(1700).

1冊. ……(생략)

이것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목록으로 숙종26년본 1 책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 역시 숙종28년이다.

따라서 숙종26년본은 그 제1책은 장서각의 2-971 同書23部 속에 이본합질로 2권이 있고 그 제2책은 2-970 영본으로 국내 유일본이며, 숙종28년본은 국내에 완질본 18부와 이본합질의 제1책으로 1권 제2책으로 4권, 제2책 영본으로 2권이 있다.

다시말해 숙종26년본은 제1책이 2책, 제2책이 1책만 전존하는 稀貴本이며, 숙종28년본은 제1책은 19책, 제2책은 24책이 전존하고 있다.

## 2.2 숙종26년본과 숙종28년본의 비교

숙종26년본과 숙종28년본은 모든 다른 판본에 비해 吳道一의 발문만을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숙종26년본은 단권본이 아닌 완질 2책본의 형태로서 제1책에 범례의 항목수가 9항이며 제2책은 ‘崇善君 澗’으로 시작하는데 비하여 숙종28년본은 완질 2책본의 형태로 제1책의 범례 항목수가 14항이며 제2책은 ‘樂善君 瀟’으로 시작한다.

### 2.2.1 숙종28년본의 구성과 수록범위

肅宗28年本の 구성과 수록범위를 보면 아래와 같다.

4>3) 숙28(1700) 4567 12/3 2 3권2책  
 제1책 ----- [出: 藏 2-967 A2-1]  
 是,自,世,列,徽,列,大,譜,例,譜,圖,中,內,外,是,跋,仁,內<sup>4)</sup>  
 『濬源系譜紀略凡例』 ----- 14項 : 張1- 2  
 『濬源先系』 ----- 始祖 李 翰 - 18世 穆祖 -----  
 『列聖繼序之圖』 ----- 穆祖 - 今上(肅宗) ----- : 張1- 2

3) 『濬源系譜紀略』이 간행되기 시작하여 4번째로 간행된 판본임을 나타낸다.

4) 타본과의 비교를 위해 범례의 머릿 글자를 1자, 필요에 따라서는 2자를 따온 것이다. 모두 14개 항목이다.

‘瑤源世系’ ----- 穆祖 - 今上(肅宗)	: 張1- 30
‘瑤源系譜紀略 卷之一’ -- 中宗자손록 - 元宗자손록 (天 - 藏)	: 張1-24
‘瑤源系譜紀略 卷之二’ -- 仁祖자손록 - 今上자손록 (閔 - 薑)	: 張1-40
小計 98張	
제2책----- [出: 藏 2-967 A2-2]	
‘瑤源系譜紀略 卷之三’--- 樂善君瀟 - 金鼎運/ 子 (海 - 常)	: 張1-88
‘瑤源系譜紀略跋’ ----- 吳道一 跋	: 張1- 4
小計 92 張 計 190 張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책은 ‘凡例’ 2 張, ‘瑤源先系’ 1 張 반, ‘列聖繼序之圖’ 반 張, ‘瑤源世系’ 30 張, ‘瑤源系譜紀略 卷之一’ 24 張, ‘瑤源系譜紀略 卷之二’ 40 張으로 모두 98 張이며, 제2책은 ‘瑤源系譜紀略 卷之三’ 88 張과 발문 4 張을 합하여 92 張으로 이루어져서 全2冊 총 190 張이다. 다시말해 제1책은 98 張, 제2책은 92 張으로 총 190 張으로 완성된 것이다. 즉 숙종26년과 비교하여 외형적 형태사항은 완전 동일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5 가지 범례가 추가된 것이 확연한 차이이다.

첫째, 외과의 어린 자녀를 기록하지 못한 것은 대신의 품정을 받아 다음에 속편을 기다려 수록하기로 한다.<sup>5)</sup>

둘째, 이 책은 庚辰(1700) 6월에 만들어져서 임금께 올리고 반사된 후에 자손록 중에 오류가 많아서 품의를 올려 고친 것이다.<sup>6)</sup>

셋째, 발문 속의 문자가 타당하지 못한 것이 지적되어 이를 고쳤다.<sup>7)</sup>

넷째, 仁顯王后가 별세한 이후에 보첩중에 계속 繼妃殿下로 기재해 두기에는

5) 『瑤源系譜紀略』宗簿寺編, 木版, 肅宗26(1700) [실은 肅宗28] (藏書閣 2-967 A2-1) 凡例 張2 右. 行5-6 “外派幼稚子女 未及添書者 因大臣稟定 以待日後 續編載錄”  
 6) 『瑤源系譜紀略』宗簿寺編, 木版, 肅宗26(1700) [실은 肅宗28] (藏書閣 2-967 A2-1) 凡例 張2 右. 行7-8 “是書成於庚辰六月 進御頒賜之後 因子孫錄中 多訛誤處有 稟旨釐改”  
 7) 『瑤源系譜紀略』宗簿寺編, 木版, 肅宗26(1700) [실은 肅宗28] (藏書閣 2-967 A2-1) 凡例 張2 右. 行9 “跋文中 文字未妥處 付標刪改”

마땅하지 못하여 諡號로 바꾸어 기록하도록 품의를 올려 고쳤다.<sup>8)</sup>

다섯째, 내외의 자손은 모두 경진(숙종26) 6월 이전의 기록인데 그 후에 죄를 지어 죽은 자는 그 관작을 그대로 둘 수 없어 품의를 올려 고쳤다<sup>9)</sup>

이들 수정 내용 중에서 숙종26년본과 숙종28년본을 두고 각 판본을 직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요소로 제1책은 범례의 항목수와 더불어 仁顯王后에 대한 기록이 가장 손쉬운 것이며 제2책은 吳道一의 발문내용의 차이점이 가장 손쉬운 것이다.

숙종26년본 이후 숙종28년본이 완성되기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濬源關聯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仁顯王后의 逝去와 東平君 杭의 몰락이었다. 각각의 '濬源世系'에서 숙종26년본은 “繼妃殿下 閔氏(籍驪興)”으로 되어 있던 것을 숙종28년본에서 “繼妃仁顯王后 閔氏(籍驪興)”으로 고치고 기존의 기록에 “辛巳(今上二十七年)八月十四日 昇遐于昌慶宮之景春殿 春秋三十五 無嗣 明陵(在高陽 敬陵東岡 甲坐庚向 辛巳十二月九日葬)”을 追載하였다.

吳道一의 발문은 4張으로 되어 있는데 第1張 左葉 第5,6行 “命 提調東平君臣杭 提調吳道一 及他宗臣二員”을 “命 本寺提調 吳道一 及宗臣晉平君澤 林原君杓”로 수정하고, 제3장 右葉 第5행 “端宗大王 追陞大位”를 “端宗大王 復正位號”로, 그리고 제3장 左葉 第7행 “… 使神理無憾 國統復正”을 “…使神理無憾 人心胥悅”로 수정하였다.

此際에 東平君 杭에 관련하여 수정사항이 발생하게 된 사정을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이미 肅宗20년에 仁顯王后가 복위되고 張氏가 희빈으로 강등되어 소론이 득세하고 남인이 몰락한 상황에서 肅宗27년 8월 14일 仁顯王后가 昇遐하였다. 이후에 10월에서 11월에 걸쳐 동평군을 유배하라는 건의가 계속되었다.<sup>10)</sup> 이는 동평군의

8) 『濬源系譜紀略』宗簿寺編, 木版, 肅宗26(1700) [실은 肅宗28] (藏書閣 2-967 A2-1) 凡例 張2. 右. 行 11-左. 行2 “仁顯王后 禮陟之後 譜牒中 仍以繼妃殿下書填 有所未安 以諡號改錄事 稟旨舉行”  
 9) 『濬源系譜紀略』宗簿寺編, 木版, 肅宗26(1700) [실은 肅宗28] (藏書閣 2-967 A2-1) 凡例 張2. 左. 行3-4 “內外子孫 皆仍庚辰六月以前書錄 而後罪死之類 不可依前備書官爵 並稟旨刪改”  
 10) 『朝鮮王朝實錄』影印縮刷版. 國史編纂委員會 發行 探求堂 頒布, 1986. 『肅宗實錄』卷35中 張 41-42 (v.39 p.625) 27年辛巳 10月 乙丑條, 丙寅條  
 『肅宗實錄』卷35下 張3 (v.39 p.646) 27年辛巳 11月 戊子條

어머니 신씨와 장희빈과 장희재 등이 연루된 지난 날의 封書사건 때문인데, 그것은 숙종15년 己巳年에 張氏의 아들 昀이 元子로 봉해졌을 때 세자의 어머니를 中宮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이에 대한 鞫廳이 열려 여러 관련자에 대한 심문이 계속되면서 東平君에게도 벌이 내려졌다.<sup>11)</sup>

한창 板本의 수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仁顯王后가 서거하고 東平君 등이 국문을 당하고 단죄되는 등의 일로 인하여, 이 史實에 대한 개정도 일련의 작업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정국의 어수선향이 개간 작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숙종28년본은 단지 수정 改刊할 뿐인데도 지지부진하여 22개월이나 걸린 주된 원인이 바로 이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단자를 다시 받고 여러 가지를 厘整하고 능묘에 대한 기록을 정확히 하는 등의 일에도 지연된 원인이 있었겠지만 숙종26년본이 단지 8개월만에 완성된 데에 비하면 이 판본의 改刊은 매우 많은 시간을 소모하였던 것이다.

다시 이 숙종28년본의 수록범위의 문제로 돌아와서, ‘璿源系譜紀略’도 그 張次는 卷別로 版心에 숫자로 기재한 외에 수록된 인물끼리 참조표시를 하기 위해 판심의 우측상단 欄外에 千字文을 기재하고 있다. 이를 각권의 張次와 비교하여 일목요연하게 표화하면 <표 1>과 같다. 이는 숙종26년본과 비교하여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璿源系譜紀略’은 5 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卷之一’은 제1단에 오로지 中宗만 있고, 제2단에 中宗의 宗支 1 世인 仁宗, 明宗의 항렬을 기록하고 있는데, 正宮所誕과 後宮所出의 순서와 先男後女의 순서대로 수록하였다. 즉 仁宗은 中宗妃 章敬王后 所誕으로 제일 먼저 수록하고, 明宗은 章敬王后 逝去後 中宗의 妃가 된 繼妃 文定王后 所誕으로 그 다음에 수록하였으며, 만약 이들이 왕위에 오르지 못한 인물이었다면 大君의 칭호로 수록하였을 것이다. 이어서 章敬王后 所誕 孝惠公主과 文定王后 所誕 懿惠公主, 孝順公主, 敬顯公主, 仁順公主를 수록하였다.

11) 『朝鮮王朝實錄』影印縮刷版. 國史編纂委員會 發行 探求堂 頒布, 1986. 『肅宗實錄』卷35下 張8 (v.39 p.648) 27年辛巳 11月 辛卯條: “下教曰 杭子炤 特免緣坐之律”

〈표 1〉 『璿源系譜紀略』 숙종28년본 면장수 구성

		제 1 책								제 2 책								跋文			
凡例	璿源先系	列聖繼序之圖	璿源世系	璿源系譜紀略																	
				卷之一				卷之二				卷之三									
張數 또는 張次	2 張	1 張半	半張	30 張	1	2	3	4	1	2	3	4	1	2	3	4	5	6	7	8	4 張
					天	地	玄	黃	閏	餘	成	歲	海	鹹	河	淡	鱗	潛	羽	翔	
					5	6	7	8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宇	宙	洪	荒	律	呂	調	陽	龍	師	火	帝	鳥	官	人	皇	
					9	10	11	12	9	10	11	12	17	18	19	20	21	22	23	24	
					日	月	盈	昃	雲	騰	致	雨	始	制	文	字	乃	服	衣	裳	
					13	14	15	16	13	14	15	16	25	26	27	28	29	30	31	32	
					辰	宿	列	張	露	結	爲	霜	推	位	讓	國	有	虞	陶	唐	
					17	18	19	20	17	18	19	20	33	34	35	36	37	38	39	40	
					寒	來	暑	往	金	生	麗	水	弔	民	伐	罪	周	發	殷	湯	
					21	22	23	24	21	22	23	24	41	42	43	44	45	46	47	48	
					秋	收	冬	藏	玉	出	崑	岡	坐	朝	問	道	垂	拱	平	章	
									25	26	27	28	49	50	51	52	53	54	55	56	
									劍	號	巨	闕	愛	育	黎	首	臣	伏	戎	羌	
									29	30	31	32	57	58	59	60	61	62	63	64	
									珠	稱	夜	光	遐	邇	壹	體	率	賓	歸	王	
									33	34	35	36	65	66	67	68	69	70	71	72	
									果	珍	李	奈	鳴	鳳	在	樹	白	駒	食	場	
									37	38	39	40	73	74	75	76	77	78	79	80	
									采	重	芥	薑	化	被	草	木	賴	及	萬	方	
								81	82	83	84	85	86	87	88						
								蓋	此	身	髮	四	大	五	常						

그리고 後宮所出로 福城君, 海安君, 錦原君, 永陽君, 德陽君, 鳳城君, 德興大院君에 이어 惠順翁主, 惠靜翁主, 貞順翁主翁主, 孝靜翁主, 淑靜翁主, 靜愼翁主을 수록하여 中宗의 9男 11女를 싣고 있다. 제3단에는 중종의 종지 2世인 宣祖의 향렬을 기록하고, 제4단에는 그 3世인 元宗<sup>12)</sup>의 향렬, 제5단은 그 4世인 仁祖의 향렬까지

각각 수록하고 있다.

〈표 2〉 宣祖의 자녀 (14男 11女)

宣 祖																								
5	永	貞	1	2	3	4	6	7	8	9	10	11	12	13	貞	貞	貞	貞	貞	貞	貞	貞	貞	貞
元	昌	明	臨	光	義	信	順	仁	義	慶		慶	仁	寧	貞	貞	貞	貞	貞	貞	貞	貞	貞	貞
宗	大	公	海	海	安	城	和	城	昌	昌	晁	平	興	城	翁	翁	翁	翁	翁	翁	翁	翁	翁	翁
	君	主	君	君	君	君	君	君	君	君		君	君	君	主	主	主	主	主	主	主	主	主	主
卷 之 二								卷 之 三																

‘卷之二’에 있어서는 제1단에 ‘卷之一’의 제5단에 수록되었던 仁祖의 항렬을 다시 수록하고 제2단에는 孝宗의 항렬을, 제3단에는 顯宗의 항렬을, 제4단에는 肅宗의 항렬을, 그리고 최하단인 제5단에는 왕세자의 항렬을 수록하고 있다. 宣祖의子女들을 기준으로 ‘卷之二’와 ‘卷之三’의 내용을 구분할 수 있는데, ‘卷之二’에는 추존왕인 元宗부터 正宮所誕인 永昌大君과 貞明公主 그리고 後宮所出의 제1왕자 臨海君부터 제7왕자 仁城君의 자손까지를 수록하였고, ‘卷之三’에는 宣祖의 제8왕자인 義昌君부터 제13왕자 寧城君까지와 10 翁主의 자손을 수록하고 있다. 이 또한 숙종26년본과 비교하여 아무런 차이가 없다.

결과적으로 중종을 기준으로 宗支는 4 세까지 外孫은 1 세까지로 제1권에 수록되었고, 다음으로는 宣祖를 기준으로 宗支와 外孫은 간행당시까지의 자손을 모두 제2권과 제3권에 나누어 실었는데 제2권에는 정궁소탄의 모두와 후궁소출의 왕자 중 제7왕자까지, 제3권에는 후궁소출 제8왕자부터 모든 왕주까지의 자손을 빠뜨림 없이 수록했다. 이를 일목요연하게 개략적으로 표화하면 <표 3>과 같다.<sup>13)</sup> <표 2>는 <표 3>의 이해를 돕는 보조표이다.

12) 元宗은 光海君의 폐위에 따라 仁祖(元宗의 長子)가 즉위함으로써 추존된 왕으로 선조의 제5왕자 定遠君이다.

13) <표 4> 중에서 ‘卷之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하단에 굵은 실선의 직사각형 부분 즉 ‘子 南夏明, 子 韓德鳳, 子 金春澤’이 들어 있는 부분은 따로 ‘卷之四’를 만들어 거기에 수록해야 할 내용이지만 그 分量이 미약하여 ‘卷之三’에 덧붙여 놓고 있다.

〈표 3〉 '瓚源系譜紀略'의 各卷 수록범위

中宗																		
仁宗	明宗																	
	孝惠公主	懿惠公主	孝順公主	敬顯公主	仁順公主	福城君	海安君	錦原君	永陽君	德陽君	鳳城君	德興大院君	惠順翁主	惠靜翁主	貞順翁主	淑靜翁主	靜慎翁主	
	宣祖																	
	元宗	永昌大君	貞明公主	臨海君	...	信城君	仁城君	義昌君	...	貞惠翁主	...	貞和翁主						
	仁祖	綾昌大君	子洪萬容	繼子陽寧君	女安弘量	海平君	樂善君	子尹堦	繼子鄭德徽	權								
	孝宗	繼子麟坪大君	子洪重箕	子益豐君	女韓以成	繼子行光善副正	臨陽君	女金益兼	子權處經									
	顯宗	福寧君	子洪錫輔	子林原君	繼子韓斗相	杞安都正	海豐都正	子金萬基	繼子權世熊									
	今上	子煥	女	子廷燁	子韓宗老	女		子金鎮龜										
	王世子	女南夏明			子韓德鳳			子金春澤										
	子				女			子										

卷之一

卷之二

卷之三

<표 3>에서 그 바탕이 가장 어둡게 표시된 부분이 숙종26년본의 제2책이 ‘崇善君 澂’으로 시작하는데 비하여 숙종28년본 제2책이 ‘樂善君 瀟’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즉 제1권에서 中宗, 明宗, 宣祖의 계통으로 宣祖의 제8王子 義昌君의 後繼인 ‘樂善君 瀟’이 최하단에 기재되었는데, 제3권에서 이를 이어 수록하되, 최상단에 ‘樂善君 瀟’을 記載하고, 제2단에 그 후계로 ‘繼子 臨陽君 桓’을 수록하고, 제3단에 ‘海豐都正燧’를 기록하고 있다. 숙종26년본에는 ‘崇善君 澂’, ‘子 東平君 杭’, ‘子 潘陽都正炤’라고 수록되었던 부분이다.

이상에서 숙종28년본의 구성과 수록범위를 확인하면서 仁顯王后의 서거에 따른 기록의 변화와 동평군에 관한 기록 변화가 핵심임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러면 세세한 수정은 과연 어떤 양상을 보일는지 자못 궁금하므로 양 판본의 판각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2.2.2 숙종26년본과 숙종28년본의 판각 변화

숙종26년본과 숙종28년본은 외형적 형태사항이 같다. 즉 전체의 張數가 같을 뿐만 아니라 채 2년도 차이가 나지 않는 기간에 추가될 사항이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기에, 숙종28년본을 간행하면서 기본적으로 숙종26년본의 판본을 그대로 다시 사용했을 것이며, 약간 補空을 해서 활용하기도 하였을 것이며, 아니면 전혀 새로운 판을 새기기도 하였을 것이다.

이에 <표 1>을 바탕으로 하여 숙종26년본과 숙종28년본을 대조하여 판각상에 변화가 있는 부분을 추출하였는데, 이때 목판을 원래의 것을 사용하였는지 아닌지는 두 판본을 눈으로 대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그래서 각 張마다 魚尾의 모양새가 다른 점, 광곽이나 계선의 절단부분, 글자의 모양, 광곽의 두께 변화 등을 살펴 꼭 같은 張은 물론하고 補空이 있더라도 그 목판은 같은 것임을 먼저 확인하였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각 張을 비교한 결과, 190張分의 판목 중에 변화가 있는 부분을 표현하면 <표 4>와 같다.

<표 4>는 하나의 사각형에 윗 숫자는 190張 全冊 즉 제1책과 제2책의 각 張 일

련번호이며 아랫 순자는 각 부문마다의 개별적 張次이다. 맨 처음 윗 부분의 일련번호 1,2에 해당하는 아랫부분의 처음 1,2는 제1책의 '凡例' 2張, 그 다음 일련번호 3,4에 해당하는 1,2는 제1책의 '濬源先系와 列聖繼序之圖' 2張, 그 다음 일련번호 5에서 34에 해당하는 1에서 30은 제1책의 '濬源世系' 30張을 뜻한다.

〈표 4〉 속종26년본과 속종28년본의 판각 변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2	1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2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1	2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182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83	84	85	86	87	88	1	2	3	4										

그 다음 일련번호 35에서 58에 해당하는 1에서 24는 제1책의 '濬源系譜紀略 卷之一' 24張, 그 다음의 일련번호 59에서 98에 해당하는 1에서 40은 제1책의 '濬源系譜紀略 卷之二' 40 張이고, 그 다음의 일련번호 99에서 186에 해당하는 1에서 88은 제2책은 '濬源系譜紀略 卷之三' 88 張이며, 마지막 일련번호 187에서 190에 해당하는

1에서 4는 ‘跋文’ 4 張이다. 그리고 짙은 부분은 완전히 改板한 것이고 옅은 부분은 일부 補空한 것이며, 흰 부분은 숙종26년본의 木板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요컨대 숙종28년본을 간행하면서 기본적으로 숙종26본의 판본의 木板을 그대로 다시 사용한 것은 68면이며, 목판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補空하여 사용한 것이 74면이고, 아예 다시 판각한 판면은 48면이다.

### 3. 숙종28년본의 刊行過程

앞에서 두 판본의 전존현황과 정확히 선별된 판본을 실제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파악하고 숙종28년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숙종26년본을 얼마나 활용했는가를 알아 보았다.

『璿源系譜紀略』을 간행한 후에는 그 업무과정을 일반적으로 儀軌廳 堂郎을 차출하여 5본을 필사하여 중부시의 璿源閣과 江華, 太白, 赤裳, 五臺의 璿源閣에 그 기록을 남겼는데<sup>14)</sup> 이들 두 판본의 간행과정에 대해 기록한 『璿源譜略儀軌』가 남아 있다. 그 내용은 교정청 또는 중부시에서 협조를 받는 관서와의 주고 받은 문서와 선원보략과 관련하여 임금께 올린 상소 또는 품의하고 보고하는 등의 문서로 약 250 件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숙종28년본에 관련된 것이 약 90건 정도가 있다. 이를 근거로 목판인쇄 과정의 한 例로서 숙종28년본의 간행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1 간행동기

숙종26년 8월 4일에 숙종26년본은 완성본의 진상과 진현의식을 마치고 세초와

14) 『璿源譜略校正廳儀軌』(藏2-3840 : M35-542) 張72 右. 行2-9 “庚辰八月初十日 啓曰 頃因校正廳啓辭 本寺璿源閣 及江華太白赤裳五臺 璿源閣所藏 璿源譜略儀軌 當依前例 差出儀軌廳堂郎 使之纂修 而本廳 凡事務從簡約 令宗簿寺 纂修分藏事 允下矣 … 傳曰允” 이 자료는 筆寫本으로서 張次가 없으므로, 이하 마이크로필름본의 張次로 대신한다.

철국으로 이어져 모든 업무를 마쳤다. 그래서 8월 10일에는 그 판목을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를 논하고 있었는데,<sup>15)</sup> 숙종6년에 승하한 숙종비 仁敬王后的 부친이 金萬基인데 그의 아들이며 金春澤의 부친인 金鎭龜가 형조판서로 있으면서 8월 19일에 상소를 올렸다. 그 내용은 자신의 曾祖父 吏曹參判 金槃에 관련된 기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것이었다.<sup>16)</sup> 이를 시작으로 문제점이 제기되고, 숙종26년본의 간행과정에서 교정청의 提調를 맡았던 병조판서 吳道一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자세로 자신에 대한 문책을 요청하면서<sup>17)</sup>, 상소에서 거론한 내용을 보면 主上殿下와 王世子的 이름을 표기할 적에 ‘名’이나 ‘諱’냐를 두고 是非를 가리고 있어서 金鎭龜의 지적보다 먼저 문제점으로 제기된 듯하지만 일시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다. 그리고 역시 提調를 맡았던 종실의 東平君, 晉平君, 林原君도 자신들은 당초에 찬수할 적에 내외과 사손에게서 單子를 받아 그 기록에 의거하여 出草하였고, 進獻 후에도 후訛誤가 있을까 염려되어 각과의 門長에게 初本을 보여서 다시 考閱하고 간행한 것이라고 항변을 하면서도 결국 오류를 면치 못한 점에 있어서는 어찌 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었다.<sup>18)</sup> 이에 숙종은 다시 수정할 것이 명하였는데 그 때가 숙종26년본이 완결된 지 20 날도 채 지나기 전이었다.

- 15) 『瑤源譜略校正廳儀軌』(藏2-3840 : M35-542) 張72 右. 行2-9 “(庚辰八月初十日) 同日 啓曰 頃因校正廳啓辭 瑤源譜略 舊本板子 令本寺稟處事 允下矣 舊本冊子 既已啓稟 仍爲奉安瑤源閣 則板本似當同爲 奉安於本寺 以此舉行 何如 傳曰允”
- 16) 『瑤源譜略校正廳儀軌』(藏2-3840 : M35-542) 張74 右. 行3 - 張75 右. 行4 “庚辰八月十九日 刑曹判書 金鎭龜 上疏 ... 竊伏見 內賜新刊 瑤源譜略 則臣祖父 贈光源府院君 臣益兼 姓名下懸註處 錄臣曾祖父 吏曹參判槃職銜 而乃書以光寧府院君 臣於此 不任怵然懼然之至 ... 況臣於係關祖先事 有不能詳審之失 臣何得自安而泯嘿乎 乞賜照察 而仍命厘正焉 臣無任隕越祈懇之至 云云”
- 17) 『瑤源譜略校正廳儀軌』(藏2-3840 : M35-542) 張73 右. 行9 - 張74 右. 行1 “庚辰八月十九日 兵曹判書 吳道一上疏 伏以臣伏見疏本 不勝惶悚之至 蓋譜略 体裁異於史書 當宁御牒 不宜闕而不載 故議于諸僚 稟於榻前 則自上以一體載錄 爲教殿下王世子 皆以爲諱某書之 而蓋以名爲諱 出於不敢直爲稱道之意也 ... 以有物議爲言 則臣以同參校正之人 惶怖不安 當復何如哉 伏乞聖慈 亟命攸司 勘臣罪名 以存國體 以謝人言 不勝幸甚”
- 18) 『瑤源譜略校正廳儀軌』(藏2-3840 : M35-542) 張72 右. 行2 - 張73 右. 行4 “庚辰八月 日 杭 晉平君澤 林原君杓 上疏 ... 當初 纂修之際 捧單於內外派子孫 依此記錄 而及其出草 進獻之後 慮或有訛誤 請示草本於各派門長 更加考閱 仍爲校梓者 實出於十分致詳之意 而到今不允爲訛誤 臣等惶恐隕越”

## 3.2 설정의 여부와 반사본 부침환수

종부시는 瑤源譜略의 校讎가 중대한 일임은 인정하더라도 이미 간행했던 숙종26년본을 改刊하기 위해 교정청을 설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처지였다. 8월 23일에 숙종께 문의하여 교정청을 설치하지 않고 厘整하여 改板하기로 하고,<sup>19)</sup> 구관당상 즉 교정당상으로는 진평군과 임원군이, 교정관으로는 礪川都正楫과 行雲興守영, 靈原正樞, 儒川副正淵, 咸平副正泓, 靑陵守謨가 전과 마찬가지로 맡았다.<sup>20)</sup>

숙종26년본을 반사받은 모든 신하는 잘못된 곳을 付籤하여 종부시로 보내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어첩의 오류에 대하여는 단종대왕 어첩주해 중에 있는 ‘贈領敦寧府事 礪良府院君’ 宋玆壽의 職名을 ‘判敦寧礪良君 贈領敦寧府事 礪良府院君’으로 바로 잡아야 하고, 顯宗大王 御牒小註에 ‘養心閣’을 ‘養心閣’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2건의 지적 사항이 수합되었고, 자손록의 오류에는 79處가 지적되어 왔는데, 숙종26년본 이후에 관직에 오르거나, 결혼, 출생 등을 고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고쳐야 할 곳으로 판단된 곳이 62處로 계산되었다. 또한 이 중에서 55處는 그 양상을 분류하자면 이름을 바꾼 것, 贈職을 쓰지 않은 것, 養父와 生父를 바꾸어 쓴 것, 初娶 無後를 쓰지 않은 것, 결혼한 자녀가 婚家를 쓰지 않은 것, 生員과 進士를 바꾸어 쓴 것, 養子로 간 사람이 그 養父의 이름을 쓰지 않은 것, 일찍이 大司憲 參判을 지낸 사람이 자손록의 훈취에도 다시 기록되는데 한 쪽은 參判이라 하고 한 쪽은 大司憲이라 한 것, 府尹을 지냈는데 承旨라 쓴 것, 牧使를 지냈는데 府使라 쓴 것, 校理를 지냈는데 修撰이라 쓴 것, 縣令을 지냈는데 縣監이라 쓴 것, 監察를 지냈는데 縣監이라 쓴 것, 持平을 지냈는데 修撰이라 쓴 것 등 14 가지 유형이 있었고, 나머지

19) 『瑤源譜略校正廳儀軌』(藏2-3840 : M35-542) 張75 左. 行8 - 張76 右. 行2 “庚辰八月二十三日 啓曰 頃瑤源譜略 訛誤處 改刊之意既已 臣杭陳疏至 有依疏辭 施行之教矣 瑤源譜略校讎 事體重大 當初設廳 實出於重事體之意 則到今厘正之時 似當更爲說廳 而既罷旋設 恐有貽弊之端 臣等不敢更請 而若不設廳號 則當自本寺 句管爲之 臣等不敢擅便 惶恐敢稟 傳曰 依爲之”

20) 『瑤源譜略校正廳儀軌』(藏2-3840 : M35-542) 張76 右. 行3 - 張76 左. 行2 “庚辰八月二十四日 啓曰 瑤源譜略 訛誤處 自本寺厘正事 命下矣 ... 校正官 礪川都正楫 行雲興守영, 靈原正樞 儒川副正淵 咸平副正泓 靑陵守謨 亦不可不 如前分掌 改其訛誤 并命逐日仕進 校正董役 何如 傳曰允”

7處는 이름의 글자를 잘못 썼거나 참조표시를 누락한 경우였다.<sup>21)</sup>

이러한 사정을 보고 숙종26년본 당시의 단자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게 되자, 다시 단자를 받아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sup>22)</sup>

### 3.3 捧單節目과 應行節目 마련

숙종27년 1월 25일에 捧單節目과 應行節目을 마련하였는데, 捧單節目을 마련하였다는 것은 일체의 단자를 다시 받는다는 의미이며, 應行節目을 마련하였다는 것은 改刊하는 업무의 규정이나 원칙을 정하였다는 뜻이다. 이들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宣祖朝 이하 대군 왕자 공옹주의 내외자손 각과의 단자는 京中은 한성부가 각부에 명령하여 서류가 빠지지 않도록 하되, 각과 단자에 門長이 서명하고 實職으로서 한 사람이 보증을 서서 서류를 내고, 瑤源譜略(숙종26년본)을 찬수하여 그 御覽이 작년 6월16일에 있었는데 그 후에 除職, 贈職, 出繼, 新生子女, 男女婚娶 등은 쓰내지 말고 만약 와오처가 있으면 門長이 고칠 것.<sup>23)</sup>

21) 『瑤源譜略校正廳儀軌』(藏2-3840 : M35-542) 張77 左. 行3 - 張78 左. 行1 “庚申 月 日 啓曰 頃因本寺啓辭 新刊瑤源譜略 訛誤處 令受賜諸臣 各自付籤 送于本寺 命下矣 受賜諸臣 今皆付籤 以送而御牒則 端宗大王 御牒註解中 贈領敦寧府事 礪良府院君 宋玃壽職名 ... 當以判敦寧礪良君 贈領敦寧府事 礪良府院君改刊 而顯宗大王 御牒小註中 養心閣誤書 以養心閣 ... 子孫錄中 付籤誤處 則七十九處也 其中 譜略刊進後 拜職及婚娶之人 新生子女 不當添錄 計其當改之處 則六十二處 而臣等使郎官 及校正官 取出當初所捧 各派單子 一一相准 則或有名字換書者 ... 曾經持平 而書以修撰之類 五十五處 皆是本家單子 誤書呈納之致也 前日校正廳所誤書 則李廷輝之廷字誤書挺字 ... 李秉成下 不書見某字等 七處也”

22) 『瑤源譜略校正廳儀軌』(藏2-3840 : M35-542) 張80 右. 行5-11 “辛巳正月二十五日 宗簿寺啓目 瑤源譜略 訛誤處 改刊板本事 既已命下 是白乎等以 卽今厘改者 一依受賜諸臣 付標修正為白乎矣 許多子孫中 不無又有 訛誤之處 是白去乎 更爲捧單各派 詳加考校 其在十分致慎之道 似爲得當 是白置捧單節目 及改刊板本時 應行節目 一依式年瑤源錄 纂修時例 參酌磨鍊後錄 爲去乎 依此施行 何如”

23) 『瑤源譜略校正廳儀軌』(藏2-3840 : M35-542) 張80 左. 行1-5 “宣祖朝 以下 大君王子公翁主 內外子孫 各派單子 京中則 令漢城府 知委各部 無有書呈 爲白乎矣 各派 單子中 門長着名 顯官一員 着保進呈 而瑤源譜略纂修 御覽在於上年六月十六日 其後 除職贈職出繼 新生子女 男女婚娶之類 並物書呈 爲白乎 如有訛誤處 門長推考 爲白齊”

둘째, 내외과 자손중에 外鄕에 거주하는 자는 宗簿寺에서 居住地의 관리에게 공문을 보내어 날자를 정하여 단자를 받아들이되, 오로지 璿源錄의 單子例에 따라 門長이 서명을 하고 3 鄕所가 보증을 하여야 하며, 만약 와오처가 있으면 門長과 鄕所를 論罪한다. 단자가 정해진 날에 올라오지 않으면 해당 수령을 推考(징계)함.<sup>24)</sup>

셋째, 京中 단자 봉상일한은 2월 10일까지로 하여 빠짐없이 올리게 하고, 기한 내에 올라오지 않으면 該當部官을 論罪함.<sup>25)</sup>

넷째, 璿源譜略 와오처 개간시 初草, 中草, 正書에 드는 紙地, 필묵, 판자 등의 물자 및 每朔, 公事下紙, 필묵을 반드시 식년 선원록 수정시의 例로 진배할 것.<sup>26)</sup>

다섯째, 板本 및 草本書寫는 前의 使喚寫字官이 書出할 것.<sup>27)</sup>

여섯째, 宗簿寺 提調 句管堂上은 격일로 출근하고 校正官 6員과 郎廳 3員은 매일 출근하되, 각과를 분장하여 厘改할 것.<sup>28)</sup>

일곱째, 이번 改板 厘改의 일은 번잡하여 일을 빨리 마치고 늦게 마치는 것은 실로 교정관의 근무태도에 달렸다. 일을 마친 후에 출근 일을 계산하고 그 근무태도를 따져서 入啓稟處함.<sup>29)</sup>

여덟째, 미진한 조건은 다음에 마련하기로 함.<sup>30)</sup>

---

24) 『璿源譜略校正廳儀軌』(藏2-3840 : M35-542) 張80 左. 行6-9 “內外派子孫中 居在外鄕者 自本寺移文 所居官 定日捧單為白乎矣 一依璿源錄單子例 門長着名 三鄕所着保 而如有訛誤處 門長鄕所論罪 單子遷就 不為上送於定日 是白去未 當該守令考推”

25) 『璿源譜略校正廳儀軌』(藏2-3840 : M35-542) 張80 左. 行10-11 “京中單子 捧上日限乙良 二月初十日內 無遺來呈為白乎矣 限內不為進呈 是白去未 該當部官 入啓論罪為白齊”

26) 『璿源譜略校正廳儀軌』(藏2-3840 : M35-542) 張80 左. 行12 - 張81 右. 行2 “璿源譜略 訛誤處 改刊時 初草中草正書 容入紙地 筆墨板子 等物及 每朔 公事下紙, 筆墨乙良 一依式年 璿源錄 修正時例 進排為白齊”

27) 『璿源譜略校正廳儀軌』(藏2-3840 : M35-542) 張81 右. 行3 “板本及草本書寫 以曾前使喚寫字官 書出為白齊”

28) 『璿源譜略校正廳儀軌』(藏2-3840 : M35-542) 張81 右. 行4-5 “本寺提調 句管堂上 間二日仕進 校正官六員 本寺郎廳三員 逐日仕進 分掌各派 厘改為白齊”

29) 『璿源譜略校正廳儀軌』(藏2-3840 : M35-542) 張81 右. 行6-8 “今此改板 厘改之役 事役浩繁 遷就可慮 畢役遲速 賣在於校正官 仕進勤慢 是白有置 畢役後 計出仕日 論其勤慢 入啓稟處為白齊”

30) 『璿源譜略校正廳儀軌』(藏2-3840 : M35-542) 張81 右. 行9 “未盡條件乙良 追後磨鍊為白齊”

## 3.4 初草, 中草, 부판정서 및 판각과 印出

숙종26년 9월에도 각수, 장책장, 소목장을 요청한 기록은 있으나,<sup>31)</sup> 반사본에 대한 부침환수와 단자의 재수집의 일정이 숙종27년 2월로까지 연장된 것으로 보아<sup>32)</sup> 숙종27년 6월에 각수가 사용할 물품을 요청한<sup>33)</sup> 때가 한창 판각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판각보다 선결되어야 할 것은 초초, 중초, 부판정서이다. 초초와 부판정서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해의 6월에 中草용으로 楮注紙를 신청한 것을 보면<sup>34)</sup> 이 즈음에 일부는 서사하면서 일부는 판각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7월 11일에 인출에 필요한 물자를 신청한<sup>35)</sup> 것을 보아도 이러한 판단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숙종27년 7월 중순에 인출에 소요되는 물품을 수차에 걸쳐 요청하였는데 7월 23일에 初本을 인출하여 다시 付標를 해 준 신하들에게 다시 보여 한 번 더 점검하겠다는 허락을 받았는데<sup>36)</sup> 그렇다면 7월 말경에 印出하였을 것으로 보였으나, 8월 12일경에 豊德의 厚陵, 高陽의 禧陵, 楊州의 泰陵, 坡州의 長陵 이상 4능이 소재하는 小地名을 제대로 수록하라는 명령이 내려진다.<sup>37)</sup> 그렇다면 이 또한 마지막 완성의

31) 『瑤源譜略校正廳儀軌』(藏2-3840 : M35-542) 張65 右. 行8-12 “庚辰九月日 厘改時甘秩 右甘決 今此 瑤源譜略 訛誤處 厘改時 使役次寫字官 崔鎮維李壽長李圭錫 書員 韓後良 唱准 池溟潑全忱, 刻手 李英萬鄭興益 粧冊匠 朴點同 小木匠 尹玉京 依瞻錄 限畢役間 定送事”

32) 『瑤源譜略校正廳儀軌』(藏2-3840 : M35-542) 張80 左. 行10-11 “京中單子 捧上日限乙亥 二月初十日內 無遺來呈為白乎矣 限內不為進呈是白去永 該當部官 入啓論罪為白齋”

33) 『瑤源譜略校正廳儀軌』(藏2-3840 : M35-542) 張66 右. 行8 - 左. 行1 “辛巳六月 日 右甘結 今此瑤源譜略 厘改時 始役坐起 明日為之為去乎 地排行步席 登每方席 鋪陳等物 依例待令為辦 瞻錄寫字官 李圭錫崔鎮維李壽長 唱准 池溟潑全忱 書員 李次堅 刻手 邊首李壽命李英萬鄭興益韓業尙劉以碩, 粧冊匠 朴點同 小木匠 尹玉京金道里崇 等急起送”

34) 『瑤源譜略校正廳儀軌』(藏2-3840 : M35-542) 張41 右. 行8-10 “辛巳六月 今此瑤源譜略 厘改張所入 板子紙地 等物 磨鍊後錄為去乎 捧甘取用 何如 手決內依粘甘”

35) 『瑤源譜略校正廳儀軌』(藏2-3840 : M35-542) 張85 左. 行2-11 “(辛巳七月十一日) 同日 啓曰 瑤源譜略 訛誤處 盡為厘正 刻役幾盡完畢 數日內 當為印出矣 ... 依此舉行 而所入紙地 令該曹 斯速進排 何如 傳曰允”

36) 『瑤源譜略校正廳儀軌』(藏2-3840 : M35-542) 張85 右. 行12 - 張86 右. 行5 “辛巳七月二十三日 ... 今將印出 而許多子孫 收錄之際 易致訛謬 其在慎重之道 不可不益加致詳 印出初本 今又送示 於付標諸臣 如有誤處 更為付標 以送厘改後 印出如何 傳曰允”

인출이 아니다.

이듬해 숙종28년 4월 28일에 새삼스럽게 숙종26년본의 오도일 발문에 문제가 제기되었다.<sup>38)</sup> 그리고 다시 改板과 改印에 드는 물품을 이즈음에 요청하고 있다.<sup>39)</sup> 그러나 그 해 5월 12일에 4능의 소재지 문제로 실록고출을 운운하고,<sup>40)</sup> 6월3일까지 그 문제가 연장된다.<sup>41)</sup> 6월18일에는 인출을 하기 위해 冊紙 搗砧이 필요하였는데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그 비가 언제 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을 조속히 진행하고자, 비오는 날 중에도 도침을 하려고 했다. 이에 草茺, 眞長木, 온돌소목등을 신청한<sup>42)</sup> 것으로 보아 이때에 인출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 3.5 改粧과 進上 및 洗草

숙종 28년 6월 10일에 改粧에 필요한 물품을 요청하고<sup>43)</sup> 6월 22일 경에 이미 진

- 37) 『瑤源譜略校正廳儀軌』(藏2-3840 : M35-542) 張55 左. 行6-10 “辛巳八月十二日 京切 觀察使了 爲 相考事 節啓下教 今此瑤源譜略 厘改時 憑考錄上次 以豐德厚陵 高陽禧陵 楊州泰陵 坡州長陵 以上四陵 所在小地名 到關卽時 星火查問 牒報事 道內豐德 等官喪中 知委施行事”
- 38) 『瑤源譜略校正廳儀軌』(藏2-3840 : M35-542) 張91 右. 行6-12 “壬午四月二十八日 大臣備局堂上 引見入侍時 吏曹判書 李奮所啓 吳道一所製進 瑤源譜略跋文中 文字未妥處 使時任主文人 改撰事 承旨稟達 已有成命 ... 當初 撰進之人改之 誠爲合宜 外議亦多如此 其跋文中 文字誤處 使道一付標 改進何如”
- 39) 『瑤源譜略校正廳儀軌』(藏2-3840 : M35-542) 張42 右. 行7-9 “壬午四月 日 今此瑤源譜略 追改時 改版與改印所入 紙地等物 磨鍊後錄爲去乎 捧甘取用 何如 手決內依粘甘”
- 40) 『瑤源譜略校正廳儀軌』(藏2-3840 : M35-542) 張92 右. 行2-10 “壬午五月十二日 啓曰 瑤源譜略 厘正之役 今方垂畢 入梓刊出 而前刊譜牒中 列聖國葬年月日 盡爲書錄 至於齋陵莊陵思陵 葬年月日 俱不載錄 敬陵則 王后葬年月日 獨不載錄 禧陵則 只錄葬年 而不書月日 泰陵則 只錄葬年月 而不書日子 當此譜牒 重爲厘改之日 莫重國葬年月 或書或不書 事体未妥 而自本寺 他無考徵之路 令春秋館 斯速考出實錄 以爲一體載錄之地 何如 傳曰允”
- 41) 『瑤源譜略校正廳儀軌』(藏2-3840 : M35-542) 張56 左. 行3 - 張57 右. 行2 “壬午六月初三日 禮曹 關內節該 到付楊州牧使 粘牒內節 到付關內節該 各陵古蹟中 國葬年月日 各其本陵喪中 果有可徵 之事 是去未 詳細訪問 斯速及期 修正事關 是乎等以 ... 所報內辭緣 相考施行向事”
- 42) 『瑤源譜略校正廳儀軌』(藏2-3840 : M35-542) 張69 右. 行5-9 “壬午六月十八日 右甘結 今此瑤源譜略 印出冊紙 搗砧事 前已捧甘 爲有在果 霾雨連下 勢難待晴之仍乎 今十九日出往爲去乎 砧家蓋覆次 草茺捌番 眞長木貳拾介 預爲 進排造作爲辦 點火乾正次 溫突燒木伍丹 亦爲進排事”
- 43) 『瑤源譜略校正廳儀軌』(藏2-3840 : M35-542) 張68 左. 行1-4 “壬午六月初十日 右甘結 今此瑤源譜

상했던 숙종26년본을 의식을 갖추어 궐내에서 종부시로 옮길 차비를 하고 있다.<sup>44)</sup> 이것은 반사본을 먼저 개정하고, 후에 전날의 진상본을 다시 회수하여 改粧하여 진상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가吉日로 채택된 숙종28년 閏6월 2일이다.<sup>45)</sup> 閏6월 17일이 되어서야 종부시의 소속인들을 이끌고 창의문 밖의 遮日岩에 가서 洗草를 하겠다고 보고한다.<sup>46)</sup>

이 숙종28년본은 숙종26년 8월말부터 訛誤를 厘正하기 시작하여 약 22개월에 걸쳐 改刊한 판본이다. 즉 숙종28년본은 숙종26년본의 訛誤厘整改刊本이다. 숙종26년본을 없애버리고 修正完成한 판본이 숙종28년본인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없어야 할 숙종26년본이 제1책과 제2책을 불문하고 3 책이 남아 있는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으며, 숙종28년본은 제1책과 제2책을 불문하고 3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상당량의 43 책이 전존하고 있다.

#### 4. 結 言

『璿源系譜紀略』 숙종28년본은 그 제1책이 19책, 제2책이 24책이 전존하고 있으며 그의 前身이 되는 숙종26년본은 제1책이 2책, 제2책이 1책으로 아주 드물게 남아 있다.

肅宗28년본의 특징은 2책 완질본으로 제1책이 범례 14항을 갖고 있으며 제2책은 吳道一의 跋文만 있으면서 제2책의 卷頭인 ‘璿源系譜紀略 卷之三’ 첫 張 최상단에

略 改粧時 改張刀鍊 隔子所用 各張厚油芘貳丈 草曆錄修正次 厚白紙參卷 黃筆參柄 眞墨貳丁 進排事”

44) 『璿源譜略校正廳儀軌』(藏2-3840 : M35-542) 張69 右. 行10 - 左. 行4 “壬午六月二十二日 右甘結 今此璿源譜略 訛誤處 改丈次 以自內奉出 陪詣本廳 罷去乎 腰輿彩輿 ... 等事 依例舉行事”

45) 『璿源譜略校正廳儀軌』(藏2-3840 : M35-542) 張56 左. 行3-5 “壬午六月二十二日 啓曰 璿源譜略 校正之役 今已垂完 進上吉日 令日官推擇 則來閏六月初二日 爲吉日云”

46) 『璿源譜略校正廳儀軌』(藏2-3840 : M35-542) 張94 右. 行11 - 左. 行3 “壬午閏六月十七日 啓曰 璿源譜略 旣已進上 有頃處改丈紙本 依前例 當爲洗草 臣等率所屬 出往彰義門外 遮日岩 依例洗草後 仍事撤役之意 敢稟 答曰 知道”

‘樂善君 瀟’을 두고, 제2단에 그 후계로 ‘繼子 臨陽君 桓’을 기재하고, 제3단에 ‘海豐 都正 燧’를 수록하고 있다.

숙종28년본은 숙종26년본 木板의 68張分을 그대로 사용하고 74張分을 補空하였으며 48張分을 완전히 새로 판각한 것이다.

그 간행과정은 숙종26년본이 완성된 후 보름이 지나기도 전에 형조판서 金鎭龜가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改刊하기로 하고 校正廳은 설치하지 않았으며, 宗簿寺에서 우선 숙종26년본의 반사본을 받은 諸臣들이 각자 오류를 수정하고 付標하게 하여 환수하였는데, 그 결과 다시 단자를 받아 작업하기 위한 捧單節目과 應行節目을 마련하여야만 하였다. 그 후 初草, 中草, 付板正書, 板刻, 印出하는 과정에 산발적으로 改正 필요 사항이 발생하면서 改粧, 進上, 洗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숙종26년본의 訛誤厘整改刊本이다. 즉 숙종28년본은 숙종26년본의 修正完成本이다.

<參 考 文 獻>

『璿源譜略儀軌』藏書閣 2-3840(M35-542)

『璿源譜略修正時謄錄』奎章閣 奎12985

『璿源系譜紀略』藏書閣 2-971 A2-1

『璿源系譜紀略』藏書閣 2-970

『璿源系譜紀略』藏書閣 2-967 A2-1

『璿源系譜紀略』藏書閣 2-967 A2-2

『朝鮮王朝實錄』影印縮刷版. 國史編纂委員會 發行 探求堂 頒布, 1986

拙稿, 「肅宗朝 『璿源系譜紀略』板本考 -판본선별을 중심으로-」, 『書誌學研究』 제13집(1997. 6), p.129-167.

拙稿, 「『璿源系譜紀略』肅宗46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제20집(2000. 12), p.123-155.

拙稿, 『塔源系譜紀略』 肅宗26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제22집(2001. 12),  
p.405-436.

K C I